

영적 상징과 꿈 <34>

부제: 상징으로 본 나르키소스 신화

나르시스(Narcissus) 신화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나르시스 신화.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소스라는 미소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나르시스(Narcissus)는 그리스어 나르키소스(Νάρκισσος)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것입니다.

이 신화의 모티프(motif)는 너무도 유명해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나르시시즘(Narcissism), 나르시시스트(narcissist) 등 병적인 자기애(自己愛)를 의미하는 단어들의 기원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나르시스 신화의 간략한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르키소스는 강의 신 케피소스와 물의 요정 리리오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엄청난 미소년이었고 그러한 나르키소스의 모습에 남자 여자는 물론 숲의 요정들까지 사랑에 빠져 그에게 고백을 했으나 나르키소스는 번번이 그들의 고백을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그것에 상심해 죽는 사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거절을 당했던 요정 중 한 명이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에게 찾아가 복수를 빌게 되고 결국 나르키소스는 네메시스의 저주에 걸리게 됩니다.

어느 날 나르키소스가 숲 속에서 누구의 손길도 미치지 않은 깨끗한 샘을 만나게 됩니다. 갈증을 느낀 나르키소스는 샘물에 몸을 숙였고, 그 순간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네메시스의 저주에 의해 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르키소스는 몇날 며칠을 밤도 먹지 않은 채 그 곳에서 계속 샘을 쳐다보다가 결국 자신의 모습을 따라 물에 들어가 빠져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르키소스가 있던 샘에는 그를 닮은 노란 수선화(水仙花)가 피어났다고 합니다.』

자백

[국어사전]

자백 : 밝음[자백], 형태분석 [自백] 1.명사 (속되게) 자기가 잘못했다고 믿거나 스스로에게 반하여 꼭 빠져 있는 일.

자백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위와 같이 나옵니다. 아마도 나르시스 신화를 보고 이 단어를 떠올린 분도 꽤 있으실 겁니

다. 이 신화는 너무도 당연한 듯이 병적인 자기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얕은 표면만을 보고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노자(老子)가 일찍이 말했다듯 욕심의 눈,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겉데기만 보이고(有欲以觀其邇) 무욕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감추어진 속내, 고갱이가(無欲以觀其妙) 보입니다.

해서 우리는 나르시스 신화를 영적 상징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다시 접근해 보려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신화에 숨겨진 메시지가 온전히 드러날 테니 말이지요.

나르키소스, 신의 혼혈아

나르키소스는 그 출생부터가 흥미롭습니다. 그는 강(江)의 신과 물의 요정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상징으로서의 강은 생명과 영속성(永續性)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강의 신은 생명의 신, 하나님의 신의 상징입니다. 반면 요정, 님프(Nymphs)는 정육과 질투의 화신으로 종종 묘사되며 실제 이상성욕(異常性慾)을 뜻하는 님포니아(nymphomania)의 어원이 될 정도이니 마귀 신의 상징임을 쉬이 알 수 있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이처럼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태생 자체가 이질적인 두 영적 존재의 소산입니다.

이러한 나르키소스의 출생 배경은 우리 인간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으나, 그 실체는 마귀 육에 갇힌 하나님,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마귀 신의 이중적 존재라는 사실과 그대로 대응되는 일종의 유비(類比, Analogy)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르시스 신화가 더 이상 뻔한 '자백'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신적 존재로서의 자기 모습에 대한 통찰의 스토리로 이해될 수 있는 단초(端初)를 이미 발견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르키소스, 호수를 들여다보다

나르키소스는 호수를 하염없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밝히고 낮이고 식음을 잊은 채 호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신화에 알려진 대로, 너무도 잘생긴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불교의 관법(觀法) 중에는 호수면을 관



(나르키소스 -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觀)하는 수상관(水想觀)이란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호수(湖水)를 들여다보는 수행이지요. 수상관(水想觀)은 자신의 마음을 직접 들여다보는 직지인심(直指人心) 즉, 진신관(眞身觀) 전단계의 수행입니다. 그토록 많은 대상 중에 굳이 호수를 선택해서 관(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현대의 정신분석이나 분석심리학에서도 호수는 종종 중요한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영적 상징으로서의 바다가 '집단 무의식', 제9식 아말라식(阿彌羅識)이라면 호수는 '개인 무의식'의 상징이며 제8식 아뢰아식(阿賴耶識)에 해당합니다.

이전 글(꿈에 대하여 6)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호수 안에 있는 해와 달을 들여다보는 아름다운 꿈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꿈에서도 호수는 꿈꾼자의 내면, 개인 무의식의 상징으로 등장했으며 호수 안에 있는 태양과 달은 자신 속의 하나님, 자성(自性)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이는 내 안의 자성을 발견하는, 일종의 견성(見性)의 장면입니다.

선사들의 오도송(悟道頌)에 호수와 달을 자성(自性)에 비유한 장면이 종종 등

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이지요.

도덕경에도 연못이 몇 군데 등장하는데 '淵兮 淵해, 似萬物之宗 사만물지종'이라 하여 '도(道)는 깊은 연못과도 같아 만물을 품고 있다'고 묘사한 것도 그 한 예입니다.

이 정도면 나르키소스가 들여다보고 있는 호수가 영적인 상징으로서 어떤 의미의 것인지 충분히 짐작되었으리라 여겨 집니다.

이제 호수를 들여다보고 있는 나르키소스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전히 나르시시즘에 빠진 미청년으로만 보이십니까? 오히려 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선사(禪師)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르키소스, 호수에 뛰어들다

자신의 모습을 한없이 들여다보던 나르키소스는 끝내 호수에 뛰어들고 맙니다. 이 장면 또한 기존의 관점대로 본다면 병적인 자기애(自己愛)에 의해 갇아 먹혀 황폐화되고 고갈된 자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를 이해한다면 이 장면은 오히려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진정한 방하착(放下著)의 장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호수 즉,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던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의 진면목(眞面目)을 마주하게 됩니다. 연못 속의 태양과 달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참모습을 본 것입니다. 호수 표면에 보이는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모습, 조금 더 깊은 곳의 마귀로서의 자신의 모습, 더 깊은 곳에 갇혀있는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모두 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인간이자, 마귀이자, 하나님임을 보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진면목(眞面目)을 보았습니다.

그렇듯한 인두껍으로 포장된 인간 나르키소스는 더 이상 참다운 자기일 수 없을 만큼 한없이 낮선 이질적 존재를 제일 뵈입니다. 그는 자신을 호수에 내던 집니다. 더 이상 인간의 층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에 자신을 내던 집니다.

이 장면은 이제 그대로 나라는 의식, 나라는 존재를 통째로 하나님께 내던지는 영적인 투신(投身), 진정한 '말씀'의 순간입니다.

나르키소스, 꽃으로 거듭나다

이제 피날레(Finale)입니다. 나르키소스, 그가 몸을 던진 호숫가에 꽃이 피어났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나르키소스의 투신(投身)이 단순한 인간적 죽음이 아닌 영적 죽음과 부활의 전주곡, 서사(序詞)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있습니다.

그는 끝내 꽃으로 거듭났습니다. 아별

레가 고치를 틀어 스스로 한번 죽은 후, 나비로 화려하게 거듭 태어나듯 말입니다.

물가에 핀 노란 수선화는 자신의 진면목(眞面目)을 발견하고 가까이 자신을 내던져 소멸한 후 재탄생한 자성(自性)의 상징입니다.

그 이름이 수선화(水仙花)인 것도 그래서 더욱 이해가 됩니다. 물(水)의 신선(仙)입니다. 신선(仙)은 인두껍을 벗고 우화등선(羽化登仙)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난 자, 수선(水仙)이라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 우연일리 없습니다.

강의 신과 님프의 혼혈로 태어나 얼굴만 번지르르한 인간일 뿐이었던 그가 수선화(水仙花),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나르키소스 신화는 아름답기 그지없는 영적인 죽음과 재탄생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나르시스 신화를 전복한 자기애의 슬픈 자화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영적 투신과 재탄생의 장엄한 서사(敘事)로 볼 것이냐는 그저 자신의 선택인 것입니다.

당신 눈에 비추어진 나르키소스는 자기연민과 자기애(自己愛)의 그물에 걸려 허우적대고 있는 가련한 인간입니까, 아니면 자기 진면목(眞面目)을 마주하고 용감히 자신을 내던진 당신입니까.

金輝 / 의사 kimtaek8@nate.com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The Overcomer is the Savior! 이긴자가 곧 구세주!

이긴자 따로 있고 구세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 The Overcomer and the Savior are not separate.

이긴자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자이다. ► The Overcomer is the one who has the ability to overcome the devil.

그러므로 구세주가 이긴자이고 이긴자가 구세주이다. ► Therefore, the Savior is the Overcomer, and the Overcomer is the Savior.

성경 호세아서 14장 5절에 쓰여 있다. ► It is written in the Bible, Hosea 14:5.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향화 같이 피겠고" ► "I will be like dew to Israel, and he will bloom like a lily."

'내가'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서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긴자 라는 뜻이다. ► "I" is God, and the word 'Israel' is Hebrew, and translated to Korean, it means the one who overcomes.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슬과 같이 된다고 약속이 되어있는 것이다. ► Therefore, it is promised that God will become like the dew.

따라서 하나님이 이슬과 같이 내리는 것이지 이슬 같은 물질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 In conclusion, God falls like dew rather than being a substance like dew.

- From the words of the Victor Christ.

by Alice

금식 기도하면 마귀가 죽인다

성경에 묘사된 예수의 금식을 따라하던 짐바브웨 목사가 3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25일 동안 물을 포함한 그 어떤 음식도 먹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BBC는 16일(현지시간) 짐바브웨 도망 비크의 복음주의 교회 설립자 프란시스 코 바라하가 예수를 따라 40일간 금식을 하려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보도했다.

바라하 목사는 25일 동안의 금식으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체중이 줄었고 신도들 뜻을 따라 병원으로 옮겨져 급성 변혈과 소화기관이 망가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혈청으로 체내 수분을 보충하고 액체류로 영양분을 공급받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쳐 지난 15일 목사는 3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교회와 유족 측은 '바라하는 저혈압이 있었다. 그는 '죽음'이라는 의학적 진단에 도전하고 싶어 했다. 목사님과 신도들이 금

식하는 건 일반적인 일이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유지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예수의 단식을 따라하려다 숨진 일은 처음이 아니다. 짐바브웨에서는 2015년 한 남성이 30일 금식 후 숨지는 사고가 있었고, 런던의 한 여성도 비슷한 금식을 도전했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예수 따라서 '40일' 금식... 짐바브웨 목사 '사망'(서울신문 2023-02-18)

이긴자 구세주께서 30일씩 금식기도를 14번 했고, 평생을 금식기도로 살았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듣고 선 불리 금식기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사실 이긴자께서는 영생을 갈구하는 가운데 죄와 죽음의 원인이 나라는 의식을 알고 그 나라는 의식이 시키는 것과 반대로 살기 위해 무지무지 애를 쓰고 기를 쓰셨다. 그런 가운데 나온 것이 금식

기도이다. 이긴자께서는 30일 동안 물 한 모금 잠 한숨을 안 하고 무릎을 꿇고 금식기도를 하셨다. 그것도 13번째는 강변에서 자갈을 구해와 방바닥에 깔고 그 위에 반바지를 입은 채 무릎을 꿇고 30일 동안 금식기도를 완수하셨던 것이다.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밀어닥쳤겠는가. 그러나 그 고통을 다 이겨내고 기도를 완수하셨던 것이다.

그다음 14번째에는 우리병을 깨뜨려서 깨진 유리 조각을 방바닥에 간 후 그 위에 반바지를 입고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피를 많이 흘리면 죽는 것을 미리 다 짐작한 이긴자께서는 죽거나 살거나 간에 오직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30일간 금식기도를 하였던 것이다.

유사이래 이런 연단을 받은 사람이 없다. 하지만 금식기도로써 어느 정도 이긴자가 될 수는 있었지만 완성자가 될 수는 없었다. 이긴자는 오직 자신의 마음을 이

겼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밀실이라는 수도처에 들어가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지워 없애버리는 수도를 하였던 것이다. 어떠한 마귀의 마음이 올라올 지라도 그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시켰던 것이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갑자기 따귀를 때렸을 경우에 보통 사람 같으면 화를 내거나 싸움이 붙었을 텐데 이긴자는 '이러한 시련을 이길 줄 알고 이겨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함으로써 자신속의 마귀를 완전히 이기게 되었던 것이다.

이긴자가 되신 후 절대로 금식기도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마귀가 모를 때에는 금식기도를 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마귀가 하나님의 무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금식기도를 하면 마귀가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것이다. 마귀에게 노출된 무기를 사용하면 마귀가 도리어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것이다.*